

“AI 내재화 에너지기업으로” 재무회복·혁신 대전환 선언

홍의락 가스공사 사장 취임

중앙통제소 찾아 수급·안전 점검
기업가치·브릿지 에너지 역할 제시
수요예측·공급망·트레이딩 고도화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동시 추진

한국가스공사의 새로운 수장으로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공식 취임했다. 홍 신임 사장은 취임 일성으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함께 AI(인공지능)를 내재화한 혁신적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가스공사는 홍의락 신임 사장이 지난 29일 대구 본사에서 제19대 사장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지난 23일 가스공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차기 시장으로 선임된 뒤 산업통상부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공식 취임했다. 사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7월 28일까지 3년이다.

홍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위상과 가치 제고 ▲브릿지 에너지 역할 확립 ▲AI 기반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의 재설계를 3대 경영방향으로 제시하고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연결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AI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재편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하고 “한국가스공사는 단순히 천연가스를 수입·공급하는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삶을 지탱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공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무건전성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경쟁력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이 지난 29일 대구 본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본사 각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스공사

을 한층 강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춘 청사진도 내놴. 홍 사장은 천연가스를 재생에너지와 상호 보완하는 ‘브릿지 에너지(Bridge Energy)’로 육성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특히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예측과 공급망 운영, 글로벌 트레이딩 등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가스공사를 ‘AI Native Energy Company(AI 내재화 에너지 기업)’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다.

홍 사장은 취임식을 마친 직후 현장경영에 돌입했다. 본사 각 부서와 노동조합을 방문해 소통한 뒤, 가장 먼저 가스 공급의 심장부인 중앙통제소를 찾았다. 홍 사장은 중동 정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천연가스 수급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보안관제센터와 동내공급관리소를 차례로 찾아 폭염·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체계를 확인한 홍 사장은 “에너지 안보도, AI 혁신도 결국 안전한 현장에서 완성된다”며 현장 중심 경영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는 “AI 시대의 경쟁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서 시작된다”며 “국민과 함께, 임직원과 함께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연결하는 한국가스공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홍 사장은 제19·20대 국회의원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이재명 대통령(앞줄 왼쪽 네번째)이 지난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청권 ‘392조 첨단산업 투자’ 속도

민관합동 실행 TF 본격 출범

100일 내 범부처 지원책 마련

삼성·SK·셀트리온 투자 지원

정부가 충청권에 예정된 392조 원 규모의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적기에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합동 실행 기구가 본격 가동한다. 향후 100일 이내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기업들의 충청권 투자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이 나오는 등 기업들의 투자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 첨단산업의 조력자 선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충청대(충청권 첨단전략

산업 대도약) 민관합동 실행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의 후속 조치다.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들은 충청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부품,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위원장을 맡은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재정경제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국장들과 충남·충북·세종·대전 등 충청권 4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산업계에서는 삼성, SK, 셀트리온, 네이버 등 충청권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주요 기업의 담당 부사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회의에서 기업들은 392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적기에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용수·전력의 안정적 공급, 세제 혜택 확대, 기반시설 확충 등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실행 TF를 개최해 투자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100일 내에 용수·전력 인프라와 세제 혜택 등을 포괄하는 ‘충청권 기업투자 범부처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보, AI·데이터 서포터즈 활동 마무리

11대 1 경쟁률 뚫은 대학생 참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공공데이터 확산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청년 서포터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무보는 지난 29일 서울 종로에서 ‘AI·데이터 서포터즈’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무보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해양환경공단이 함께 추진한 이 사업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와 가치를 국민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1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학(원)생 서포터즈는 약 3개월간 각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영상과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며 공공데이

터 홍보에 힘썼다.

이번 사업은 무보가 추진 중인 디지털 혁신의 일환이다. 무보는 지난해 9월 공공부문 AI 선도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관련 조직을 본부로 격상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무보는 다양한 정보를 플랫폼에 담아내고, 다이렉트 상품에 AI를 접목하여 고객 만족의 차원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승희 무보 AI·디지털사업본부장은 “지난 3개월간 서포터즈의 열정적인 활동에 힘입어 공공데이터 이용이 크게 활성화됐다”며 “앞으로도 무보는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를 적극 발굴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사업체 종사자 18개월 만에 최대 증가

고용부,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전년 동월보다 24만8000명 늘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가 18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년간 내리막길에 있던 건설업에서도 간만에 소폭 늘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만4000명으로 전년동월(2046만6000명) 대비 24만8000명(1.2%) 증가했다.

사업체종사자 수는 6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4년 12월 26만2000명이 늘어난 이후 최대폭 증가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2만4000명(4.8%)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금융 및 보험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또한 각각 3만3000명(3.8%), 3만3000명(3.4%) 증가했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역시 1만2000명(0.3%) 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긴 기간 감소세를 보이던 건설업에서 7000명(0.5%) 늘면서 2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은 지켜봐야 하지만 건설수주, 착공 면적, 건설기성 등이 증가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도매 및 소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각각 2만9000명(-1.3%), 5000명(-1.6%) 줄었으며, 정보통신업 역시 3000명(-0.4%) 감소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뉴시스

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은 1701만7000명으로 17만4000명(1.0%) 증가했고 300인 이상 또한 369만7000명으로 7만4000명(2.0%) 늘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전년동월 대비 7만6000명(0.4%) 늘었으며 임시일용근로자 역시 15만명(7.9%) 증가했다. 기타종사자 또한 2만2000명(1.6%) 증가했다.

빈 일자리 수는 15만6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40개월 만에 증가세로 접어든 4월 이후 3개월 연속 늘고 있다. 빈 일자리는 현재 사람을 뽑고 있고,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7월에 새롭게 일이 시작될 일자리를 파악한 결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세종=김연세 기자 kys@

건통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과징금 1.3억

공정위, 불공정 거래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건통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건통건설은 에스구미요양원 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마쳤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3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발주자로부터 선금금과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 대금을 받고도 이를 수

급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건통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상의대금 지급, 서면 발급, 선금금 지급, 대금지급 보증, 설계변경 조정 의무 등을 전방위로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